

OPEC城은 난공불락인가

— 제 3위기는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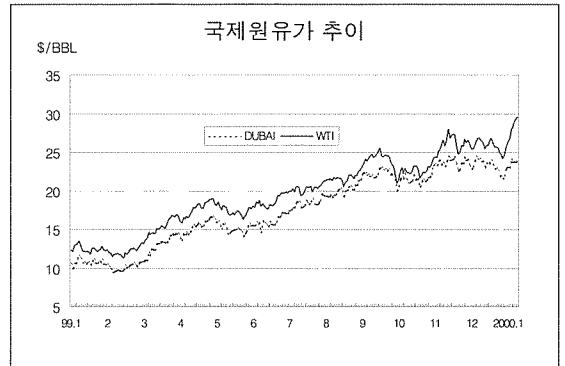


계 덕 남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

새 천년이 시작되는 지금 국제석유값이 치솟아 전량을 수입하여 쓰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국제유가는 美 서부텍사스산 중질유인 WTI유의 경우 배럴당 30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91년 Gulf전 이후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30달러대의 초 고유가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작년 초 10달러대와 비교하여 볼 때 거의 2.5배 이상 오른 것으로 IMF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우리의 경제안정기조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고 있다.

석유시장의 구도는 99년 3월, 소위 OPEC 감산결의(430만b/d) 이후 계속해서 생산자시장 주도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들은 유가가 내릴만 하면 금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 감산시한을 “연장”해서 공급물량을 줄이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 만나기만 하면 레코드판처럼 “감산연장”을 흘리면서 교묘히 고유가 유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생산감축은 시장경제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생산이 줄어들 경우 동시에 소

비를 그만큼 줄이면 가격은 오르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틀리지 않지만, 석유라는 상품은 가격탄력성이 적은 생활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사치품과 달리 그 반응이 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석유수출국들은 고유가라는 “꿀맛”에 도취되어 석유값이 높으면 높을 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높은 석유가격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막대한 석유수입부담으로 인플레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석유수요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25달러를 넘어서는 가격은 석유대체재인 천연가스나 석탄, Tar sand 등의 경제성이 되살아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국제에너지업체는 작금의 유가가 얼마나 오래 지탱할 수 있는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5년 이상 길게 간다면 대체에너지개발과 신유전개발에 본격적으로 투자할 것이지만 만약 작년초와 같이 10달러대로 떨어진다면 모두가 허사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유가폭락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 외국기관들이 2000년 유가를 20달러 이하로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다. 작년 3월 OPEC이 1년간 감산을 결정할 때만 하여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이들(OPEC)의 결정을 믿지 않고 유가 부양을 위한 “show”쯤으로 생각하였으며 그에 따라 유가상승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예상은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OPEC의 시장지배력

OPEC의 석유시장 지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OPEC의 결연한 단결력이 깨어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OPEC는 작년 3월 감산을 결정한 이후 80%에 달하는 감산준수율을 유지하면서 복잡

한 집안사정을 고유가 유지라는 당근으로 결속하여 동결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탱하여 온 것이다. OPEC의 내부사정은 사회, 정치적 구조 등이 매우 복잡하여 열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라는 면에서 모두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는 “유가상승”이 가장 좋은 처방으로 이들의 단결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여기에다가 OPEC 회원국이 아니면서도 하루 300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노르웨이와 멕시코를 각각 감산에 동참시키면서 감산효과를 배가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의 감산협조는 세계 주력 소비시장인 미국과 유럽 즉 大소비시장에 위치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먼 중동석유보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석유시장의 전략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大소비시장에 위치한 이들 양국의 감산협조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OPEC 주도의 석유시장이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두 나라도 공통적으로 석유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석유수출수입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에는 같은 노선을 걷는다고 하겠다.

거기에다가 98년부터 99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저유가는 국제석유시장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낳았다. 저유가는 탐사·개발투자를 위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 석유회사의 매출을 크게 저하시켜 Global Big Deal 현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무려 천 억달러 이상에 달하는 BP-Amoco, Exxon-Mobil, Total-Fina 등의 합병이 대표적 케이스이다. 이러한 석유업체의 합병과 전략적 제휴의 흐름은 세계경제의 “Globalization”대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전자, 항공기 등 다른 업종에 비교하여 그 규모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 최대 기업군들이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어수선하여 저유가의 탐사·개발투자를 계

을리 하게 되었고 그 결과 OPEC의 감산이라는 무기 앞에 생산증대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그리고 경영진의 교체와 경영정책의 혼선 등으로 對OPEC 정책 등 산유국정책에 게을리 할 가능성이 크며, 궁극적으로는 고유가는 그들의 수입을 늘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탐사, 개발투자의 부진은 2000년 초반의 석유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겠다. 바꾸어 말하면 기존 생산국인 OPEC의 영향력은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볼 때 막강한 석유매장량과 수출능력은 OPEC의 석유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키는데 충분하다.

IEA와 미국의 새로운 움직임

지금까지 OPEC의 시장우위와 메이저들의 투자부진 등이 고유가를 유발해 왔음을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OPEC의 시장지배력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인가? 그러면 미국, 일본 등 소비국들은 이에 대응할 능력은 없는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석유가격을 바라만 보고 점점 비어 가는 호주머니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전세계 석유수출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하루 900만배럴이상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최대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는 받을 빛도 상당히 있다. 먼저 지난 90년 Gulf전 때 이라크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주었으며 지금도 軍을 주둔시켜 군사적인 후견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 석유산업을 지명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기술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Exxon, Texaco 등 미국 석유기업들은 모래벌판의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을 이잡듯이 뒤져서 유전을 찾고 정유공장과 송유관을 건설하는 등 석

유산업 전반에 걸쳐 깊숙이 그리고 전적으로 참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안보면에서나 산업면에서 미국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우디는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집트, 이라크, 이란 등 반미 아랍 주의가 강한 열강에 둘러싸여 언제, 어디서 침략을 당할지 모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여 창설된 석유소비국동맹(IEA)은 약 120일분의 석유비축분을 가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석유공급시장의 붕괴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유가에 대한 전략비축유 방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든든한 석유재고와 막강한 군사력을 감안시 지난 73년 석유위기 때와 같은 석유의 “정치무기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석유를 소비하는 동시에 세계 각지에 생산유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의한 지출과 생산에 의한 이익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 석유가격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중 유가 상승으로 석유수입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며, 반대로 유가상승 영향이 순기능을 하면 고유가를 방관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가격(WTI 30달러)은 분명히 역기능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리차드슨 미국 에너지장관은 현재의 고유가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들과 고유가의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제재를 풀어서 석유시장의 공급을 보다 증가시켜 유가를 안정시킬 방법도 UN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UN에서 고유가로 인한 세계 경제의 주름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소비국의 공동대응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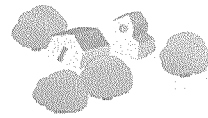
제3의 석유위기는 모면할 듯

이렇게 볼 때 시장의 균형가격은 순수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크기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그리고 대체에너지공급 가격이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의 가격이 소비국이 부담하는데 숨이 가쁜 것만은 사실이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유전 탐사 생산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등 이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유가급등 배경에는 OPEC이라는 시장 지배세력의 유가방어 노력외에도 날씨라는 요인도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작금의 혹한 추위가 풀리면 급등세 역시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추위가 풀리면 난방유 소비가

줄고 비수기에 접어들어 가격은 다시 하향안정세를 찾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OPEC가 3월에 다시 모여 현재의 감산수준을 연장(6개월가량) 한다 하여도 본격적인 석유비수기가 다가오면서 감산준수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어 그 효력은 겨울철 같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비OPEC의 석유생산도 그 동안 고유가로 하루 100-150배럴 이상 늘어나 수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의 가격을 정점으로 하여 하향 안정세를 찾는 것이 그간의 상황을 종합하여본 결론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고유가로 인한 제3의 석유위기는 상호 힘의 견제로 말미암아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

용어해설



에코페미니즘

최근 지구촌의 관심이 생태보호와 환경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생태 여성론인 에코페미니즘은 21세기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환경운동과 여성해방운동의 만남이다. 에코페미니즘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파괴는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다. 여성과 환경문제는 남성 중심사회의 동일한 억압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새천년을 맞이한 지금 동시에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황폐화시킨 남성중심, 서구중심, 이성중심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뒤바꾸자는 실천지침이기도 하다. 여성=자연, 남성=문명으로 보는 에코페미니즘은 남성과 인간을 타도대상이 아닌 남성과 여성, 자연과 인간이 원래 하나라고 규정하고 어울림과 균형을 통한 모든 생명체의 통합을 강조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생명의 가치, 자연 생태계를 존중하며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70년대 후반 등장한 에코페미니즘은 독일, 프랑스등 서구에서는 이미 새로운 대안론으로 자리잡았다.

팍스 시니카

Pax Sinica. 중국이 세계를 제패해서 중국중심의 세계에 평화가 온다는 것을 말한다. 결국 팍스 아메리카와 유사하게 중국이 자기 뜻대로 세계질서를 재편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구 언론들은 세계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2020년이 되면 대만을 포함해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즉 앞으로 20여년 후인 2020년에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9조7000억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9조8000억달러에 달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이 경제대국이 되면 문화적인 자존심을 앞세워 동북아와 세계질서를 자기 뜻대로 재편하려 시도할 것이 분명한 만큼 중국의 야심을 조기에 눌러야 한다는 경계론이 서방세계에서 일고 있다.